

##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 중국 생보시장, 2위 그룹 경쟁 본격화

- 최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위 3개사에 이어 2위 그룹인 타이강생명(泰康人壽)과 신화생명(新华人壽)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생명보험회사들 대부분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외형성장 보다는 내실 경영에 치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올해로 모두 설립 13년차를 맞이하며 라이벌로 꼽히는 업계 4위 타이강생명과 5위 신화생명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계 순위가 뒤쳐질 수 없다는 절박감이 더해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올해 상반기(1~6월) 타이강생명은 344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여 324억 위안에 그친 신화생명을 약 20억 위안 차로 앞서고 있었으나, 7월에는 수입보험료 격차가 10억 위안까지 줄어들음.
  - 또한 타이강생명의 경우 여러 지표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총수입보험료 및 방카슈랑스 부문에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4%와 12% 하락한 반면, 경쟁사인 신화생명은 오히려 16%,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생명보험 상위 5개사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1~7월 누적)

회사명	2007년 수입보험료(만 위안)	2008년 수입보험료(만 위안)	성장률
중국생명	20,304,062	19,112,155	-5.9%
핑안생명	6,141,177	8,286,351	34.9%
타이핑양생명	4,369,127	3,949,551	-9.6%
타이강생명	3,999,739	3,823,973	-4.4%
신화생명	3,281,578	3,724,711	13.5%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circ.gov.cn) 통계 참조

- 신화생명은 수 개월 내 업계 4위 자리를 차지한다는 목표로 지점 지원을 통한 영업력 강화를 올해 하반기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신화생명의 움직임에 대해 타이강생명은 최근 상반기 업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수행하되 업계 4위의 위치는 반드시 지킨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사적으로 외형과 효율 모두에서 자칫 경쟁사인 신화생명에 역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21세기경제보도, 8/26)